

## 감리교 구원론

감리교회는 18세기 영국에서 웨슬리 형제에 의해 일어난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결과로 태어난 교회이다. 그 후 미국을 거쳐 한국에 선교사들에 의해 전파되어 세워진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교리적으로 웨슬리의 전통에 입각하고 있으며, 구원론을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의 유산과 성령의 역사, 사회적인 변혁을 특징으로 한다.

감리교회의 구원론은 성경적인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생활의 경건 속에서 구체화하여 실천해 나가는 생명 있는 신학에 근거하고 있다. 그 주제는 성경 전체의 대의를 이루는 성화에 일차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적으로 역사하면서 인간의 응답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즉 회개, 칭의, 성화를 성경적인 구원의 길로 하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통해 충만으로 향하는 것이다. 그 목표는 성숙하고 온전한 신자의 구원으로서, 실천적인 제자의 도리와 은혜의 수단들의 사용으로 도달 가능하게 된다.

### 1. 원죄와 선행은혜

인간이 처한 상황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이다. 하지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자연적 본성의 형상은 이성, 자유의지, 감정 등으로 되어 있고, 정치적 형상은 창조세계의 청지기로 돌보는 책임을 말한다. 가장 중요한 형상은 도덕적 형상인데, 하나님의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음을 말한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인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도덕적 형상을 잃고 죄로 인해 타락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되어 죄의 권세와 지배 아래 처한 것이다. 원죄의 보편적인 사실은 이와 같은 전적으로 부패하게 된 불의한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 된 본성을 말하며, 나아가서 인간은 구체적으로 실제로, 마음과 행위로 죄를 짓게 된다. 죄의 결과는 죽음과 멸망이다.

선행(先行)은혜는 이러한 본성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서 모든 사람에게 먼저 선행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교리이다. 하나님은 은혜로 먼저 오신다는 것이다. 감리교의 독특한 교리인 선행은혜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모두 회개를 원하는 자유의지에 근거한 양심이 남아 있다. 구원의 초기에 죄책감이나 하나님을 찾는 첫 열망과 소원이 부분적이지만 이미 회복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감리교 교리에서는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함께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적 임재와 구원의 가능성을 위한 자유의지와 응답가능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구원의 여명과 준비인 선행은혜로는 구원이 충분이 이루어질 수 없다.

### 2. 회개와 칭의

구원의 길 혹은 순서에 따라 죄인은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와 그것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 이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가능하다. 회개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도덕법으로 계시되는 하나님의 의에 응답하여 겸손하게 자신을 인식하고 죄인인 자신을 하나님의 앞에서 바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는 자각을 가지고 죄인은 진지한 구원의 갈망을 품게 되며, 이제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로 향해 나아가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칭의가 참된 의미에서의 구원이다. 이 구원론의 기초가 종교개혁의 원리요, 감리교회가 계승하고 있는 근본 교리이다. 칭의는 하나님의 호의의 회복이

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이므로,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결코 아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며, 신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통해 화해하게 된다.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속의 은혜, 속죄의 축복을 받게 된다. 칭의는 아무 공로도 없는 죄인이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은 이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믿음은 역동적인 것임으로 선행과 사랑의 행위를 통해 필연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 선행은 믿음을 입증하는 열매들로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에 의해 맺어지는 것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성화의 과정에서 구원의 충만한 완성을 위해 열매인 선행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은사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과 선택을 할 몫은 인간에게 항상 남겨져 있다.

### 3. 신생과 성화

감리교 구원론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중시한다. 그러므로 감리교의 구원론은 체험적인 성격을 가진다. 칭의가 죄책에서 해방되는 주님의 십자가 공로에 의한 용서라면, 신생 혹은 중생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로 태어남이다. 두 가지는 같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불가 분리한 구원의 사건이지만, 서로 구별된다. 칭의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라면, 신생은 신자 안에서의 진정한 내면적인 실재의 변화를 가져온다. 칭의의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호의가 회복된다면, 신생의 은혜에 의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부어져서 성령의 사역에 의해 영적인 성장이 시작되는 것이다. 비로소 신자는 참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자유롭게 시작하게 되며, 죄와의 싸움을 승리로 나아가게 된다. 다시 태어난 영혼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응답을 통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영적인 감각인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은 곧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과 확신을 보통 동반하게 된다.

구원 받은 신자는 이처럼 새로운 창조를 통해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성화는 용서 받은 죄인이 원래 창조된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갱신하는 과정을 말한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은 거룩한 성품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입게 된다. 성령의 열매들인 사랑, 희락, 화평 등의 성품들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성화가 가능한 것이다. 그와 같은 성품, 기질들을 통해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목표인 완전한 성화를 향하는 것이다.

기독교인의 삶은 구원론에서 중요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랑으로 점점 더 성숙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죄는 남아 있지만 신자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며 이미 신생으로 그 권세가 파괴되었으나, 성화는 신자가 남은 죄와의 싸움을 계속하는데 있다. 결국 여기서 필수적인 믿는 자의 회개는 지속적으로 주시는 성화의 은혜에 의해 가능하며 거기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의 응답이 있게 된다. 거듭난 신자는 외적, 내적 죄로부터 점점 자유롭게 되어, 마침내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목표에까지 향하게 되는 것이다. 죄의 권세는 점점 감소되며, 사랑의 능력과 권세는 점점 증가되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완전에 도달할 때까지 신자는 성장한다. 감리교 구원론에서 성화론은 이와 같은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믿음을 말하며,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낙관주의를 전제한다.

성화의 삶은 완전 혹은 온전을 목표로 한다. 온전한 기독교인은 사랑으로 충만한 구원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에 신자가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완전 성화이다. 이 순결하고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

에 부어주시는 것이며, 그 사랑이 지배하는 곳에서 죄와 정욕의 지배적 권세는 점진적으로, 마지막에는 순간적으로 완전히 정복될 수 있다. 전적인 성화는 죽음 혹은 그 바로 이전에 이 세상에서 가능하다고 감리교 구원론에서 독특하게 주장한다. 이 완전함은 결코 인간적 연약함과 실수 등의 한계와 조건에서 자유한 절대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단지 상대적인 의미에서 의도와 동기에 근거한 사랑의 완전이다. 신자는 원죄로 인해 유산으로 존재하는 죄의 뿌리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직 사랑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을 구원의 목표로 한다. 그렇지만 완전한 신자도 다시 타락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그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럼에도 완전 안에서 계속 성장을 이루게 되므로, 소망과 기대를 통해 완전은 목표로 남게 된다.

#### 4. 새로운 창조

감리교 구원론은 개인적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 문화와 온 세계에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완성되고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곧 성경적인 구원의 길이므로, 구원은 현재, 미래에 걸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계를 새롭게 갱신하고 창조하시는 역사를 포함한다. 하나님의 의도는 죄로 타락한 인류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원래의 창조의 모습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우월한 새로운 창조(새 하늘과 새 땅)를 최종적으로 가져오시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론적인 구원론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성취를 믿는 감리교 구원론을 확대시켜서, 창조질서의 회복, 사회적인 개혁과 정의의 실현, 모든 창조된 세계에 대한 청지기적 돌봄과 책임에 이르기까지 소망 가운데 구원의 시각을 넓혀준다.